

LG전자

생각대로

다니엘 헤니는 프로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들을 위해

레저도 인생도
프로처럼 즐겨라

CYON PRO

*본 제품은 T-Map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9년 11월~12월 중 CYON PRO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T-Map Golf와 단말기 분실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장 내에서 문의하십시오.

코스피
1,594.82
(+1252P)달러당
원화값
1,157.90원
(430원 1)

A10 반도체 패전병들의 반란

일본 엘피다메모리, 대만 원보드일렉트로닉스(華邦電子) 등 반도체 업계 '패전병'들이 합종연횡으로 선두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A15 KT가 '워룸' 만든 까닭

이석재 KT 회장이 쏟아지는 경영 현안과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분당 본사 17층에 '워룸'을 신선했다.

A16 휴대폰 값 너무 올랐다

11월 휴대폰대리점을 방문한 김 모씨는 가격 설명을 듣고 크게 놀랐다. 전월말 휴대폰의 출시가격이 5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19 미치체로 '람스터' 먹는다?

국내 대형마트에 1마리 1만5000원도 안 되는 바닷가재 상품이 등장했다. 수산물계 귀족이라 불리는 바닷가재의 '굴욕'인 셈이다.

A29 행정구역 통합 청약 후폭풍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주민엔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진다.

A37 "출구전략 각 나라별로"

"출구전략은 각 나라 형편에 맞게 시작해야 합니다." 피치의 글로벌 신용등급 부문 데이비드 라일리 대표의 이같이 강조했다.

군사·경제력 최강 G2 평판 왜 안좋을까

美-군사위협 中-인권침해로 세계에서 반감

매일경제·EAI·WPO공동 20개국 여론조사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하드파워'에 비해 '소프트파워'가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다른 나라들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 위협 가능성, 중국은 인권 침해 이미지가 국가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 미국 메릴랜드대 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과 공동으로 기획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제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0%, 44%에 그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케냐 등 세계 20개국 2만3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오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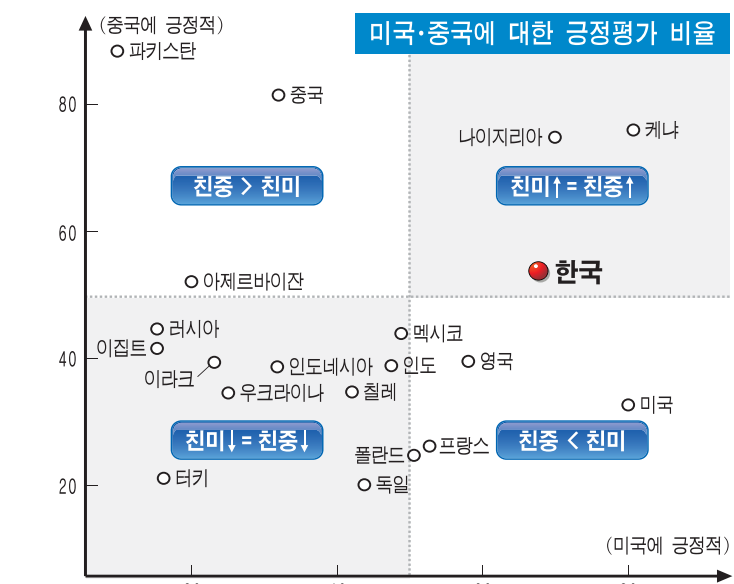
사에서 응답자들은 미·중 어느 곳도 국제 사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중 양국이 '국제 사회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34%로 나타나 반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 이미지가 국가 평판을 깎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응답자 중 무려 77%가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인권 분야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그친 반면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양국 소프트파워가 부족해 국제 사회를 양분하는 '반쪽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친미파와 친중파가 뚜렷이 나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유럽 지지도가 높은 반면 이슬람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



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영국 58%, 프랑스 52%, 폴란드 51%, 독일 4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집트는 15%에 그쳤고 터키 16%, 이라크 23%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중국은 옛 공산권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유럽에선 지지율이 낮았다. 아제르바이잔은 52%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러시아 44%, 이집트 42%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독일은 긍정 평가가 21%에 불과했고 폴란드 25%, 프랑스 26% 등으로 나타났다.

미·중 원조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는 양국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 긍정 비율이 68%로 중국 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WPO 대표 스티븐 킬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미·중 양국에 대한 국제 사회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 등에 미국과 중국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현 기자

mbn 보도채널 부동의 1위

매일경제TV(MBN)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2009년 방송평가'에서 보도분야 방송채널 사업자 중 YTN을 누르고 1위를 고수했다. 특히 작년보다 점수 격차를 더 벌려 보도채널 부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11일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분야 방송채널 사용자사업자(PP) 평가 결과 MBN은 500점 만점에 415.75점을 기록해 376.4

점에 그친 YTN을 큰 폭으로 앞섰다. 2008년 평가에서는 MBN이 386.6점, YTN이 367.45점을 기록했지만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다.

MBN은 자체 심의, 시청자 불만처리,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위원회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시청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철저한 것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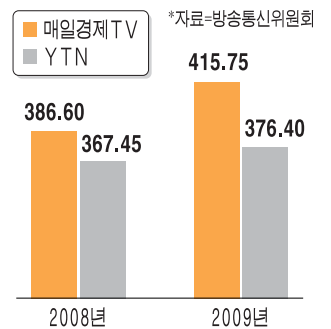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만점(60점)에 가까운 57점을 기록해 내용과 편성 분야에서 고품격 보도채널임을 입증했다. 회사 운영 부문에서도 재무 건전성, 인

적자원 개발, 방송기술수준, 경영 투명성, 여성 고용 등이 YTN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보도분야 방송채널 사용자사업자 중 MBN과 YTN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경제전문 방송을 표방한 후발 매체들이 출현했지만 방송위에 인가된 정식 보도채널은 MBN과 YTN뿐이다.

한편 지상파 방송 부문에서는 KBS 1TV가 759.76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한 반면 MBC는 705.0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KBS

보도분야 방송채널 평가결과 (단위:점, 500점 만점 기준)



2TV는 732.19점, SBS는 741.11점을 받았다.

이번 방송평가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황인혁 기자

삼성·LG, 美CES상 휩쓸다

삼성 23·LG 18개 선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혁신상과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2010년형 LED TV 등 21개 제품이 'CES 혁신상'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디지털이미징 카메라 제품 2개도 이 상을 받게 돼 삼성 계열사가

수상한 제품은 모두 23개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TV(4개), 블루레이 플레이어(3개), 홈시어터(1개), 냉장고(1개) 등 영상음향·가전 분야 10개 제품이 상을 받았다. 휴대전화(6개), MP3플레이어(2개), 모니터(1개) 등 모바일 IT제품 11개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LED TV와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시어터는 '최고 혁신상'을, 휴대전화와 디지털 액자, 전 기오브 레인지는 '전환형 디자인상'

을 받았다.

LG그룹은 18개 제품이 혁신상을 받았다. LED TV를 비롯해 네트워크 블루레이 플레이어, 휴대전화 등 17개 제품이 상을 받았다.

LED TV는 화질, 슬림 디자인,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 기능으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이노텍은 데이터 통신의 편리성은 물론 조소형·슬림형 디자인을 내세운 모바일 와이맥스 모듈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김대영 기자

中 차안자동차 “상하이車 비켜라”

5개업체 인수합병...거대 자동차 그룹 야심

【베이징 장종회 특파원】포드자동차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토종 자동차기업 장안(長安)자동차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의 자동차 자회사 5곳을 인수해 거대 자동차그룹으로 변신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자동차업체 몇 개로 업계를 재편하려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육성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11월 상하이데일리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안자동차 모기업인 중국군수장비그룹(COEGC)은 전날 AVIC 측과 장안자동차 지분을 일부를 넘기는 대신 미니밴 업체인 하얼빈 하페이(哈飛)자동차, 장허(昌河)자동차, 연전업체인 동안(東

安)동력, 장허스즈키, 동안미쓰비시 등 5개 업체를 장안자동차가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AVIC는 M&A를 통해 거대업체로 변신하는 장안자동차의 지분 23%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COEGC 소유가 된다. 더 구체적인 인수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M&A는 지난 5월 이뤄진 광저우자동차와 창병자동차 간 합병 규모를 넘어서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간의 최대 규모 M&A로 기록될 전망이다.

장안자동차는 16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중국 내 4위 업체다.

11일 주요 시세

주 가		
코스닥	485.62	(+2.68)
미국다우존스	10,246.97	(+20.03)
미국나스닥	2,151.08	(-2.98)
일본니케이	9,871.68	(+0.95)
중국상하이	3,175.19	(-3.42)
홍콩恒生	22,627.21	(+359.05)
대만자위엔	7,668.06	(+74.57)
환 율		
원화(100엔당)	1,292.30원	(-2.34)
원화(1유로당)	1,735.11원	(-6.62)
원화(1위안당)	169.62원	(-0.62)
엔화(1달러당)	89.64엔	(-0.16)
달러(1유로당)	1,4986달러	(+0.0015)

금리·원자재		
MKF국고채	128.2244	(+0.1562)
국고채(3년)	4.42%	(-0.05%P)
회사채(AA-)	5.52%	(-0.04%P)
CD(91일)	2.79%	(보 합)
콜(1월)	1.98%	(-0.09)
주택담보대출 최고	6.35%	(보 합)
미국국채(10년)	3.48%	(+0.0107%P)
유가(두바이)	77.37달러	(+0.10)
유가(WTI)	79.05달러	(-0.38)
금 1g(소매)	50,133원	(+267)

※다우존스, 나스닥, 유가는 전일 기준, 다른 외국 증시는 당일 기준, 엔·달러, 달러·유로는 도쿄 15시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기준.